



東南亞細亞地域의 輸入需要減少

1962年版「海外市場白書」(日本貿易振興會
發行)에서 轉載

東南亞細亞 여러 나라의 세멘트工業은 發展一路에 있어 台灣, 「타이랜드」는 이미 輸出余力도 充分히 갖추게 되었다. 「필리핀」에서도 國內生産은 若干 過剩상태에 있으며 印度에서는 約三割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다고는 하나 61年度에는 800萬屯은 生産하고 第3次5個年計劃이 끝나고 66년에는 自給化를 目標로 하고 있다. 또 越南은 日本의 主要輸出市場이 있으나 美國의 「바이·아메리칸」 政策에 依하여 61年 第2, 4半期 以後의 輸出은 全無이며 今後의 展望은 아주 悲觀的이다. 이와같이 東南亞細亞諸國의 自給度向上에 依하여 日本의 輸出平均은 좁아들고 있으며, 61年 1月 ~ 9月에 있어서의 東南亞細亞에 對한 輸出 980萬屯은 前年同期比 2% 增加에 머물고 있다.

즉, 大量市場이던 越南, 香港, 台灣, 比律賓에 대하여는 前歲한 原因으로 大幅 減少하였다. 다만 「싱가폴」 「인도네시아」에 對하여는 建設품이 增加하였기 때문에 겨우 前年水準의 金額을 維持할 수 있다.

香港에서는 前年 中共製品에 쫓기는 꼴이 되었으나 本年 上半期에는 台灣, 越北製品의 進出이 둔에 띄게 되었다. 日本製品은 1~7月間 8万8,000吨 輸出되어 前年同期를 조금 下廻하였다. 日本製品은 他國製品에 비해 品質은 좋고 屯當 諸費用을 包含하여 越北品 92香港弗 (16美弗), 中共品 93香港弗, 台灣品 95 香港弗로 되어있는데 對해 日本品은 98香港弗로 販賣되고 있다. 台灣의 水泥 生産量은 61년에 들어 月産 13万屯을 維持하고 있으며 輸出余力도 充分해졌으므로 香港에서는 中共品과 함께 台灣品의 攻勢를 받아 경쟁이 격化하고 있다.

比律賓에서는 60年 4月 「디프트볼」 措置

(外換時勢를 實勢에 接近시키는 것이 主眼) 實施와 同時에 再編成된 外貨割字分類表에 있어서 새로이 UI (輸入禁止)에 編入되었다. 이로써 國産세멘트價格은 二割程度 騰貴했으나 高價한 「프레미엄」을 支拂하여 輸入할 程度의 需要는 없다.

比律賓에는 7社 세멘트工場이 있고 總設備能力은 60年末 現在 2900萬 袋이다. 이以外에도 새로이 6社 (1800萬 袋)가 新設計劃中이라고 하며 最近에 이르러 過剩設備의 傾向이 顯著히 나타나고 있다. 57년에는 總輸入 14萬 8000噸의 99%까지를 日本이 輸出하고 있었으나 60년에는 賠償베이스로 6,400噸, 61年 1~9月에는 겨우 1300噸으로 減少상태에 있다.

越南의 세멘트市場은 日本에 對하여 이 數年間 最大의 顧客이었으나 美國의 「바이·아메리칸」 政策에 依하여 이 「루우트」는 끊기었다.

日本으로부터의 輸入을 연기 위하여 61年 当部 輸入學者의 陳情이 「와싱턴」에 目付되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日本品 代身으로 台湾, 「라이랜드」의 「세멘트」가 輸入되어 價格은 玆當 日本品의 20 「센트」高, 「데리바리」는 同市場에 익숙해짐에 따라 難點은 解消되고 供給國의 輸出體制는 改竊되어 玆日本製品에 對한 「노스탈자」는 사라졌다.

「인도네시아」에서도 國產化가 促進되어 年間消費量 約 70萬屯의 三分之二를 「기리엔」 및 「인다룬」 工場의 生産으로 調達하고 있다. 또 「파캇살」(年産能力 10萬屯, 「체코스로바키아」의 經濟技術援助)과 北스마트라(年産能力 20萬屯, 「포오랜드」의 經濟技術援助)에 工場建設이 予定되고 있다.

61年 1~9月の 「인도네시아」向 輸出은 15萬4000屯으로 前年同期 4500屯을 大幅上廻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 「세멘트」를 大

量으로 必要로 하는 工事는 거의 各國의 借款
으로 行하고 있음으로 大部分은 施工을 받은
各國으로 부터의 고나플이 달린 輸出이다. 그
러나 政府는 官庁의 庁舍, 港灣施設, 一般住宅의
增設을 活發히 行하고 있음으로 政府系商社를
 통한 購入은 年年 相當量에 達하고 있다.